



고난주간 가족예배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26:69)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6:2)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실로 죽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우리 대신 마시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 송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다같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1번 반복)

(후렴)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27:57-66 다같이

-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메 시 지 돌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가? 인도자

나 눕 한 주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57-66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라 명합니다. 요셉은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장사지내고 돌문을 굴러 무덤을 인봉합니다. 그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가 겪는 고통을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돌문처럼,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봉인 (62-64절)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둘러 빌라도를 찾아가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말이죠.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하였나이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삼 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였나이다.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하였다고 속이면, 이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가장 진지하게 기억한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돌문 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보았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은 돌문 너머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보다 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봉인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 (65-66절)

빌라도는 그 부탁을 허락했습니다. "경비대를 데려가라.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완벽히 막아라." 이제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인 로마의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돌문을 굳게 봉인했습니다. 본문이 '완벽히 막으라(아스팔리조)'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은 인간의 최선이 무덤을 봉인하는 데에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봉인하여 절도의 가능성을 없앨수록, 부활의 증거는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 외에 다른 가능성이 단허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돌문 앞에 앉아 있는 당신에게 (60-61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돌문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돌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결코 돌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꽉 틀어막고 있는 돌문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여인이 사흘 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마 28:1). 그들은 돌문 너머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정말 문제 너머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돌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는 말

오늘은 고난주간의 토요일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어두웠던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날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대의 강력한 인봉과 경비, 거대한 돌문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막으려 한 그 돌문, 그 강력한 봉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봉인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듯, 당신의 인생을 막고있는 돌문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돌문은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곧 임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어둠의 시간을 이기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